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바탄반도주립대는 산 속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에 나갈 때는 FB나 택시를 이용해서 나가야 합니다. 기숙사는 3~5층이고 1~2층은 교실들과 직원들 숙소, 그리고 3~5층에도 중간에 교실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 되어, 어떤 숙소는 화장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거나 구멍이 나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숙소에만 빛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산중 모든 별레들이 숙소 앞으로 모여듭니다. 기숙사는 3인실이고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주 3회 방청소가 있고 세탁을 맡길 수 있으며, 잘 개어서 주십니다. 1층엔 매점이 있는데 초콜릿과 커피, 과자 등을 팝니다. 기대한 것보다 지낼 만하고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선 안됩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첫날 시험을 본대로 수준별로 시간표가 짜여 집니다. 개인4시간 그룹4시간으로 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 이어지는데 점심 먹기 전 개인2시간 그룹2시간, 먹은 후 개인2시간 그룹2시간입니다. 첫 주 동안 수업을 들어보고 오피스에 문의하여 선생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룹 멤버는 바꿀 수 없습니다. mmc라는 그룹과목이 있는데 광고, 트레일러등을 감상하고, 과제는 뮤직비디오와 커머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까지 마쳐야 해서 수업을 마친 후엔 조원들과 모여서 항상 회의하고 촬영하고 편집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생활을 빠르게 만든 원인이자, 좋은 추억, 경험이 됩니다. 수업 내용은 단어, idiom, 그리고 이슈를 두고 내 의견을 말하고 토론을 해보는 등 보통 스피킹 위주로 돌아가며, 드라마틱한 성장이 따르지는 않지만, 확실히 자신감도 늘고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전보다 자연스러워 집니다. 선생님과 잘 맞으면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나누고 좋습니다. 첫 주는 8시간을 영어로만 말하다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엄청난 피로를

	느끼는데, 밖으로 자주 놀러다니고 말을 자주 섞다보면 전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토익스피킹시간은 해커스 문제집을 통해서 스피킹테스트를 준비하는 수업인데, 2주에 1번씩 시험을 봅니다.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로 한 챕터가 끝나면 간단한 퀴즈와 액티비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에 반영되기보다는 태도를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고, 수업에만 열심히 임해주면 됩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매주 수요일은 3시부터 5시까지 액티비티가 있고, 금요일은 Fun Firday로 매주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하루, 매주 어딜 갑니다. 총 4개의 액티비티가 있었는데, 수빅투어, 마닐라투어는 말 그대로 시티투어이며, 굉장히 많이 걷고 피곤합니다. 정해진 곳에서만 사진을 찍고 시키는 대로 이동해야해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씨만 좋다면 사진을 찍을 기회가 굉장히 많고, 쇼핑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안바야 리조트는 넓은 수영장과 바다가 있는데, 경치가 정말 좋고 깨끗합니다. 참고로 인피니티풀장은 없습니다. 그냥 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뷔페보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가격도 괜찮고 맛있습니다. 저희는 우기에다가 심한 태풍이 겹쳐 요트투어를 하지 못해서 그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추가비용은 액티비티 동안의 모든 식사비용, 그리고 액티비티 안에서의 이동수단에는 개인지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기에 방문할 시에는 우산, 우비가 꼭 필요하며, 운동화는 별로 쓰일 일이 없고 항상 샌들, 쪼리가 좋습니다. 매주수요일에하는 액티비티는 게임같은건데, 식당에 모여서 팀을 짜고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여줍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우기에는 열에 아홉 비가 옵니다. 한국보다는 덥지 않고, 가끔은 밤에 시원하여 에어컨을 키지 않고 잘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덥고 습하기 때문에 미니선풍기를 챙겨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필리핀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백화점 매장 앞에선 무장한 경찰들이 무기를 확인합니다. 다른 매장에도 경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것은 딱히 없다고 느꼈고, 그냥 한류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쳐다봐서 민망하고 자주 말을 걸어 오는데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대부분 그냥

	무시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수돗물은 석회수라 피부와 머릿결이 잘 상하고 가끔 녹물이 나올 땐 틀어 놓고 정수기물을 이용해 세수를 하면 됩니다. 숙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3가지는 개미, 바퀴벌레, 도마뱀인데, 숙소에 개미가 나오면 바퀴벌레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도마뱀을 볼 수 있는데, 가끔 우는 소리를 낼 때가 아니면 거슬리지 않습니다. 개미는 간식을 먹고 껌질을 두면 그 때부터 방에 개미가 끓기 때문에 바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숙소에 하자가 있어도 바로 고쳐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10시~10시 40분동안 점호를 하고 스케줄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불만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고 카톡으로 단독에있는 담당 매니저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급식은 한식으로 나와서 한국음식이 그렇게 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바로 저녁을 주는데 FB를 타야 할 때는 바로 나가야해서 외식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버포인트, SM몰이 가장 가까운 백화점이고 그 안이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식점도 있어서 먹고 싶으면 가서 먹을 수 있으나 현지 음식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길거리 음식도 파는데 물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물갈이 한 사람만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귀국 전날 선생님과 함께 길거리 음식을 먹었는데, 비주얼과 냄새는 별로 였지만, 맛은 우리나라 길거리 음식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FB라는 운송수단을 자주 이용했는데 한사람당 14페소(50페소가 500원)이고 엄청 깡겨타야하며 앞사람에게 돈을 토스하며 기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인상깊습니다. 택시는 하버포인트, SM몰에서 slc까지 4명은 120, 6명 이상은 150정도를 내고 이용했습니다. 수빅투어나 마닐라투어때는 선생님들과 함께 지프니를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끼리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잘 몰라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지프니는 색깔 별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정류장도 정해져있지 않아서 신기 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공항세	12,600(600페소)	출국 전 주에 건음
식비, 간식, 생활용품	300,000	
쇼핑, 기념품	80,000	
리조트 식비	10,000	가기 전에 학생대표가 건음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보통 물갈이를 하게 되는데, 제산제와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통, 감기를 제외하고 본인이 자주 먹는 약들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달러로 환전후, 필요한만큼 조금씩 페소로 환전하여 사용하는게 효율적입니다.

한국 간식이나 한국에만 있는 것들은 가져와 선생님들께 선물로 줄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편지와 편지봉투도 예쁜건 안파니까 사오면 좋습니다. 옷은 많이 가져와봤자 다 입지 않게 되고, 편한 냉장고바지나 체육복과 통넓은 바지가 좋습니다.

매운음식이 그립지만, 컵라면이나 다른 음식들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수건은 4개~5개가 적합합니다. 특히 우기에는 양말을 신을 일이 거의 없고 운동화는 더러워져도 빨갈이 없습니다.

풀장이 있는데 공이나 튜브를 챙겨오면 좋고 수영복, 쿨토시, 캡모자 챙겨야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올해 초에 필리핀 세부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물갈이를 하거나 적응하는데 오랜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다들 별레나 현지 음식, 문화, 언어는 처음 경험해 보았고 어느새 거기에 적응하고 즐기게 되어 막판에 귀국하기 전에는 4주만 더 있어보면 한국에 가고싶었을 텐데.. 하기도 했습니다.

기대 한 것 보다 훨씬 알차게 보냈습니다. 앞에있는 줌라인타는 곳에서 줌라인도 타고, 동물원도 가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항상 시내로 나가서 간식을 사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끔이지만 현지인들과 대화를 섞기도 하고, 음식을 주문하거나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쉬운점은 낮을 너무 가려서 선생님들에게 내송을 많이 떨었던 것입니다. 헤어질 때가 되니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교감하지 못한게 참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성장 한 학생으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도 성적

이지만, 저는 사람을 대하고 영어로 나를 표현하는 길에 전보다 수월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전공도 나이도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과 취미, 습관을 영어로 얘기하다보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얘기도 많이 해서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전공은 다 기억이 안나지만,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만날 리가 없었을 텐데 참 신기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 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도 선생님들과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헤어졌지만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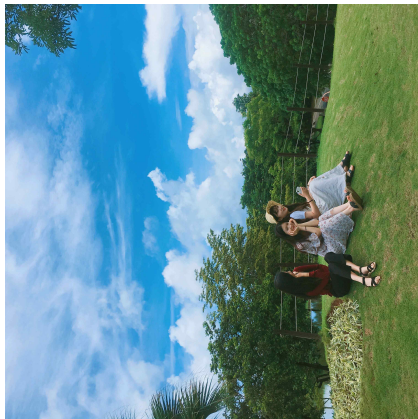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하버포인트 내부 중앙, 처음에는 너무 예뻐서 사진을 엄청 찍다가 나중에는 그냥 지나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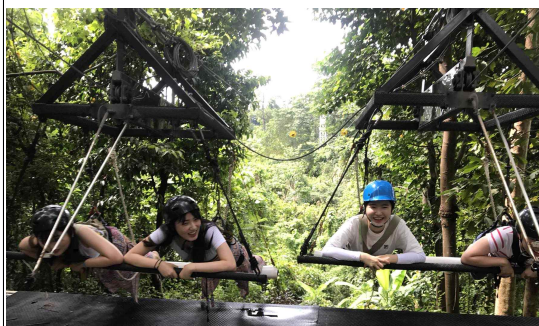
첫 Fun Friday 핑크 티셔츠 입는 날
어떤 날은 긴 양말을 신고 어떤 날은
커플/솔로별로 다른 색 옷을 입는다.



안바야 리조트 식당앞에서!
이날은 예쁜 옷 입는 날이었다.



마닐라투어 때 미션으로 찍은 사진.
미니 선풍기를 챙긴 사람이 워너다.



트리탑 리조트에서.
다 필요없고 슈퍼맨 라이드가 제일
재밌다,



졸업식 스피치.
뒤에 내 사진이 뜨는데 뒤돌아
확인하려다가 말았다.